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Lives of the Stoics · Chapter 6 DIOGENES THE DIPLOMAT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Ryan Holiday & Stephen Hanselman, Lives of the Stoics — 「Diogenes the Diplomat」 (원서 PDF 49~54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6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어 낼 수 있는가."

기원전 155년, 아테네는 군인도 외교관도 아닌 철학자를 로마에 보냈다. 동료 카르네아데스가 정의를 하루 만에 뒤집고 로마를 '바보들의 도시'라 부르며 판을 깰 때도, 디오게네스는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고 벌금은 500탈란트에서 100탈란트로 줄었다. 그 사절행은 스토아가 교실을 나와 권력의 무대로 들어선 첫걸음이었다. 공부도 같다. 아는 것과, 흔들리는 시험장에서 침착하게 그것을 지켜 내는 것은 다르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4장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전자책이라 인쇄 쪽 번호가 없음).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시·대화·책 목록)은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철학자를 보낸 이유(50쪽 ¶1~¶4) / 남는 것은 본보기(51쪽 ¶1) / 공동선을 위한 철학(53쪽 ¶4~¶5) / 이익의 균형을 잡는 외교관(54쪽 ¶2~¶3)
4~5	**밑줄 함축 의미**	Desperate times required desperate measures / the first salvo / a city of fools / did not rise to provocations / I'm not sure whether I should be / hardly one that scales / got away with its bluff / picking their pocket with the other / the work of our life
6	지칭 추론	he·his가 Carneades·Cato the Elder 사이를 오가는 51쪽 ¶2·¶5 / he blamed Diogenes의 he(52쪽 첫 줄) / One of them·his counterparts(51쪽 ¶2) / he·His student·he said(53쪽 ¶6)
7~8	내용 일치·불일치	연도·출신(230·142 BC, 바빌론, 셀레우키아, 클레안테스가 죽은 해) / 스승 크리시포스 · 다섯 번째 수장 · 155 BC / 견유학파(약 두 세기 앞) / 500 → 100탈란트 / 대 카토 · 소 카토 / 사망 전승(키케로 150 BC · 루키아노스 80세)
9~10	**어법**	the idea of -ing + 단수 동사 · 분사구문(Supervising ~ / Hailing from ~) · It's not what you say that(강조) · than do our professors(도치) · demand that S be p.p. · might have p.p. · So too did he(도치) · as appalled as he was(양보) · No longer / Nor + 도치 · 의문사절 주어 + makes · provided (that) · not merely A but B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hostile↔friendly · calming↔provocative · prudent↔reckless · resounding↔dismal · insular↔open · appealing↔unattractive · practical↔abstract · enormous↔tiny · flawed↔perfect · disclose↔conceal
12	빈칸 추론	its philosophers / pragmatic / the example that you set / restraint and sobriety / diplomatic in every sense / a classroom exercise / only in the abstract / pragmatism / the common good / Caveat emptor / struck a balance
13	문장 삽입	실천 정치를 다룬 스토아 저술의 공백(52쪽 ¶5 ~ 53쪽 첫 줄) / 사절 장면(51쪽 ¶4~¶6) / 사망에 관한 세 전승(54쪽 ¶7)
14	무관한 문장	교실 속 철학 단락(52쪽 ¶3~¶4)에 견유학파·알렉산드로스 일화 끼워 넣기 / 아테네의 배경(50쪽 ¶4) / 부와 덕(54쪽 ¶4~¶5)
15	순서 배열	곡물 논쟁(53쪽 ¶6 ~ 54쪽 ¶1): 키케로의 기록 → 안티파트로스의 주장 → 디오게네스의 반론 → Caveat emptor / 사절의 흐름(51쪽 ¶4~¶6): 공개 강연 → 카르네아데스의 찬반 → 카토의 경악 → 진정시키는 메시지
16	요약문 완성	교실에서 권력의 무대로(50쪽 ¶5, 51쪽 ¶3, 54쪽 ¶8) / 철학자의 기술이 필요한 자리(53쪽 ¶5) / 내지 않은 벌금과 균형(53쪽 ¶2, 54쪽 ¶2~¶3)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고유명사·숫자·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서로 겹치는 장이다(155 · 150 · 230 · 142 BC, 500 → 100탈란트, 80세, 약 두 세기, 한 세기 반).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Cleanthes's death ↔ birth, decided not to pay ↔ paid the fine, Cato the Elder ↔ the Younger, student ↔ teacher). 인물 관계 · 숫자 · 동사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는다.

1-2. 구조도 — 「Diogenes the Diplomat」 (50~54쪽)

외교형(사건 → 배경 → 인물 → 사절 장면 → 성과 → 철학사의 전환 → 실용 정치철학 → 상거래 논쟁 → 결말). 핵심 축은 **교실(classroom) vs 권력의 무대(halls of power)**, 그리고 **도발(provocation) vs 절제(restraint)**.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50 ¶1	사건	155 BC 다섯 번째 수장 디오게네스가 아테네에서 로마로 사절 / 다른 학파 수장들과 강연 / 로마뿐 아니라 세계를 바꿈
50 ¶2~¶3	의문	철학에 적대적인 도시에 늙은 철학자들을 보냄 / 몇 해 전 원로원의 철학자 금지령 / 군인 · 외교관 · 변호사 · 뇌물이 아니라 철학자 — 왜? / 절박한 때는 절박한 수단
50 ¶4	배경	알렉산드로스 사후 끝없는 습격 / 마케도니아 왕들 아래 주둔(한 세기 반의 대부분) / 테베레 강가의 작은 도시 → 패권국 로마 / 500탈란트 벌금 → 무기는 철학자
50 ¶5	의미	한 세기에 걸친 문화 패권 싸움의 첫 포성 / 스토아가 교실을 나와 권력의 무대로 내디딘 첫걸음
50 ¶6~¶7	인물	클레안테스가 죽은 해 출생 · 셀레우키아(오늘날 바그다드 대도시권) · 크리시포스에게 배움 / 견유학파 디오게네스와 달리 반사회적 반항아가 아님 — 실용적
51 첫 줄	평가	도전자(아리스토)도 싸움꾼(크리시포스)도 아님 / 재치보다 신뢰 — 존경받는 지도자 / 언어학 · 음악 · 심리학 · 수사학 · 윤리학 · 정치철학
51 ¶1	계기	플루타르코스: 제논의 성품에 대해 읽고 감화 / 남는 것은 말 · 글 · 건물이 아니라 본보기
51 ¶2~¶3	제자	타르수스의 제논을 이어 수장 / 많은 제자 · 카르네아데스(훗날 회의주의 아카데미 수장) / 고대 철학자의 위상
51 ¶4~¶5	사절 장면	공개 강연 → 원로원 연설 / 카르네아데스: 첫날 정의 옹호, 이튿날 정의 반박 / 대 카토의 경악 — "돌려보내라"
51 ¶6	연설	진정시키는 메시지 — 적보다 동맹 / 크리톨라오스와 함께 세련되고 설득력 있게 / '절제와 냉철함'에 감탄
51 ¶7 ~ 52 ¶1	절제	'바보들의 도시' 발언 · 디오게네스 탓 / 도발에 넘어가지 않음 / 침 뱉은 십 대에게 "화나지는 않았소"
52 ¶2	성과	500 → 100탈란트 / 세 사람, 특히 디오게네스의 명성 / 대 카토의 증손자 소 카토 = 위대한 스토아 학생
52 ¶3~¶4	전환의 배경	가장 많이 얻은 쪽은 그리스와 스토아 / 철학 = 교실의 연습 / 학파들은 덕의 정의만 다툼 / 작은 마을 같은 아테네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52 ¶5 ~ 53 첫 줄	정치사상의 공백	키케로(오빙크 인용): 디오게네스 이전엔 실천 정치를 다룬 스토아 저술 없음 / 플라톤에 맞선 유토피아 논쟁 / 현자만 다스릴 자격
53 ¶1~¶2	현실	현자만의 정치는 규모를 키우면 안 통함 / 로마의 그늘 / 아테네는 깎인 벌금도 내지 않음 — 허세가 통한 듯
53 ¶3~¶5	실용주의	제논의 『국가』도 아닌 결점 많은 사람들의 세상 / 아리스토와 달리 공동선 · 나라를 위한 철학 / 철학자의 기술이 스토아 밖에서 필요
53 ¶6 ~ 54 ¶3	상거래 논쟁	안티파트로스: 모두 밝혀야 공정 / 디오게네스: 법이 정한 결함만, 나머지는 거짓 없이 최대 이익 — Caveat emptor / 경쟁하는 이익의 균형
54 ¶4~¶5	부와 덕	모든 것에 무관심하라는 아리스토는 비현실적 / 부는 필수, 그러나 덕보다 중요하지 않음 / 덕 = 평생의 꾸준함
54 ¶6~¶8	결말	저술은 거의 남지 않음 · 가장 많이 인용된 저자 / 사망 시점 불확실(키케로 · 루키아노스 · 다른 자료) / 정치적 힘으로서의 스토아는 이제 시작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사절의 무기	통상의 외교 수단: 군인, 전문 외교관, 변호사, 선물과 뇌물	철학자(its philosophers): 절박한 때의 절박한 수단
철학의 자리	교실의 연습(a classroom exercise) · 학생 자신의 좋은 삶	권력의 무대(the halls of power) · 공동선과 나라를 위한 봉사
두 디오게네스	견유학파 — 통 속에서 잠 · 반사회적 반항아 · 알렉산드로스를 경멸	바빌론의 디오게네스 — 실용적 · 무난한 옷차림 · 예의 있는 토론
사절의 태도	카르네아데스 — 찬반을 오가는 웅변 · '바보들의 도시' · 과시(showboating)	디오게네스 — 절제와 냉철함(restraint and sobriety) · 도발에 넘어가지 않음
로마의 반응	대 카토의 경악 — "돌려보내라"	벌금 500 → 100탈란트 · 증손자 소 카토는 위대한 스토아 학생
정치사상	유토피아 논쟁 · 현자만 다스릴 자격(크리시포스, 아마 제논에게서)	실천 정치 문제를 다룬 첫 스토아 저술(키케로 · 오빙크)
세상을 보는 눈	현자들의 도시, 곧 제논의 『국가』와 플라톤의 『국가』	혼란스럽고 결점 많은 사람들의 세상 → 실용주의(pragmatism)
철학의 목적	현자만의 것 · 개인의 자기실현(아리스토)	생각의 방식이자 규칙 — 공동선 · 나라를 위한 봉사(디오게네스)
판매자의 의무	안티파트로스: 모든 정보를 밝혀야 공정하고 정의롭다	법이 정한 결함만 밝히고 나머지는 거짓 없이 최대 이익 — Caveat emptor(디오게네스)
부와 덕	모든 것에 무관심하라(아리스토)	부는 필수, 그러나 덕보다 중요하지 않음 / 돈은 삶을 편하게, 덕은 삶의 과업(디오게네스)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Diogenes of Babylon	B. 230 BC – D. 142 BC(49쪽 표기) · 출신 바빌론 · 고향 도시는 **셀레우키아**(오늘날 바그다드 대도시권) · 발음 Die-AHHJ-en-eez · 스토아 **다섯 번째** 수장
출생 · 스승	**클레안테스가 죽은 해**에 태어남(태어난 해가 아님) · 아테네에서 **크리시포스**에게 배움 · 타르수스의 제논이 수장이 될 때 아직 젊은이
155 BC	아테네에서 로마로 외교 사절 · 그리스 다른 대학파의 수장들과 함께 강연 · "로마뿐 아니라 세계를 바꿈"
로마 원로원	사절 몇 해 전 철학자 **금지령** · 철학에 적대적이기로 악명 높은 도시
배경	알렉산드로스 대왕 사후 그리스 · 이탈리아의 끝없는 습격 · 아테네는 앞선 한 세기 반의 대부분을 주둔군 아래(마케도니아 왕들의 싸움) · 로마 = 테베레 강가의 작은 도시 → 식민 야망을 지닌 국제 패권국
500탈란트	아테네와 이웃 사이 분쟁 → 로마가 통제하는 행정관들이 아테네에 불리하게 판결한 벌금(53쪽 ¶2: 이웃 도시 습격에 대한 벌금) · 아테네가 거의 낼 수 없는 액수
Diogenes the Cynic	약 **두 세기** 앞선, 이름이 같은 선배 · 통 속에서 잠 · 반사회적 반항아 ·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경멸(53쪽 ¶5)
Aristo / Chrysippus	디오게네스는 아리스토 같은 '도전자'도, 크리시포스 같은 '싸움꾼'도 아님 / 아리스토 = 철학은 현자만의 것(53쪽 ¶4) · 모든 것에 무관심(54쪽 ¶4)
공헌 분야	언어학 · 음악 · 심리학 · 수사학 · 윤리학 · 정치철학 — 초기 스토아 사상의 떠오르는 별
Plutarch	디오게네스가 **제논의 성품**에 대해 읽은 것에 감화되어 스토아로 왔다고 전함
Carneades	디오게네스의 제자 · 거친 반대론자 · 훗날 **회의주의 아카데미** 수장 · 크리시포스 저작 공부를 통해 입문 · 첫날 정의 옹호, 이튿날 반박 · 로마를 "바보들의 도시"라 부르고 디오게네스를 탓함
Critolaus	**세 번째** 연사 · 디오게네스와 함께 세련되고 설득력 있었음
Cato the Elder	로마에서 가장 냉철하고 정치적 영향력 큰 시민 · 카르네아데스의 찬반 강연에 경악 → 로마 청년을 더 타락시키기 전에 돌려보내라고 요구
Cato the Younger	대 카토의 **증손자** · 철학의 '타락'을 피하지 못하고 가장 위대한 스토아 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됨(뒤의 '로마의 강철 인간(Iron Man)' 장)
"restraint and sobriety"	로마인들이 디오게네스에게 감탄한 점 · 과시적이고 눈치 없는 동료와의 대비로 더 돋보였을 것(likely)
십 대의 침	로마에서 침을 뱉고 야유한 십 대에게 "화나지는 않았소. 하지만 화를 내야 하는지는 모르겠소" — 카르네아데스 소동도 같은 침착함으로 받았으리라는 것은 저자의 **상상**
100탈란트	500 → **100**탈란트로 감액 · 그러나 아테네는 깎인 벌금도 내지 않기로 함 — 허세(bluff)가 통한 듯
Cicero / Dirk Obbink	오빙크의 글 「Diogenes of Babylon: The Stoic Sage in the City of Fools」 · 키케로는 디오게네스 이전에 실천 정치 문제를 다룬 스토아 저술을 알지 못함
초기 스토아 정치사상	플라톤의 『국가』 · 『법률』에 맞섬 · 제논의 급진적 『국가』 → 크리시포스의 『정의에 관하여 플라톤을 반박함』 · 『권고』 / 현자만 다스릴 자격(크리시포스, 아마 제논에게서)
Marcus Aurelius	몇 세기 뒤 삶은 "플라톤의 『국가』"가 아니라고 스스로 일깨움 · 디오게네스는 제논의 『국가』도 아님을 봄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Antipater	디오게네스의 제자 · 땅이나 곡물을 팔 때 모든 정보를 밝혀야 "공정하고 정의롭다" · 일부 자료에 따르면 디오게네스는 그가 수장을 이을 때까지 삶(54쪽 ¶7)
Caveat emptor	"사는 사람이 조심하라" — 법이 정한 결함은 밝히되 나머지는 거짓 없이 최대한 유리하게 팔아도 된다(디오게네스)
부 / 덕	부 = 즐거움과 건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필수** · 덕보다 중요하지는 않음 / 덕 = 평생의 꾸준함 · 굳은 의지 · 일관성(키케로의 요약)
저술과 죽음	거의 남지 않음 · 베수비오 분화로 파괴된 도시의 문헌상 **플라톤 ·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더 많이 인용 / 키케로: **기원전 150년**에는 이미 죽고 없었다 · 루키아노스: **80세** · 다른 자료: 10년 더 또는 안티파트로스가 이을 때까지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Lives of the Stoics · 「Diogenes the Diplomat」 (원서 PDF 50~54쪽) · 6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6-1 왜 철학자를 보냈는가 50쪽 ¶1~¶5

원문 위치 원서 50쪽 ¶1~¶5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 첫 문장	Diogenes of Babylon, the fifth leader …, was sent	동격 + 수동태
▲	¶1 둘째 문장	he, along with the heads …, would give	along with는 동사의 수에 영향 없음
▲	¶1 셋째 문장	not only Rome but the world	not only A but (also) B
▲	¶2 첫 문장	the idea of sending … seems crazy	긴 주어(the idea) + 단수 동사
●	¶2 첫 문장	notoriously hostile	반전 후보 → friendly
▲	¶2 둘째 문장	had decreed an outright ban on	과거완료(파견보다 먼저)
◆	¶3	Desperate times … desperate measures.	밑줄 의미: 절박할 때는 비상한 수단
▲	¶4 첫 문장	had been an endless series of	과거완료 + a series of
▲	¶4 넷째 문장	growing from a small city … to an international hegemon	분사구문 + from A to B
▲	¶4 다섯째 문장	Supervising a dispute …, … magistrates	분사구문(주어 = magistrates)
★	¶4 다섯째 문장	five-hundred-talent fine	숫자 — 서답형 후보
★	¶4 마지막 문장	one of the few weapons it had: its philosophers	빈칸 1순위
▲	¶5 첫 문장	the first salvo in what would be	전치사 + what절
◆	¶5 첫 문장	the first salvo	밑줄 의미: 긴 싸움의 첫 포성
★	¶5 둘째 문장	out of the classroom and into the halls of power	요약·빈칸 후보

내용

기원전 155년, 스토아의 다섯 번째 수장인 바빌론의 디오게네스는 아테네의 외교 사절로 로마에 파견되었다. 그는 그리스의 다른 대학파 수장들과 함께 자기 학파의 가르침을 강연하게 된다. 사소한 일 같지만 이 사건은 로마뿐 아니라 세계를 바꾸었다. 외교 수단으로 보면, 철학에 적대적이기로 악명 높은 도시에 경쟁 학파의 늙은 철학자들을 보낸다는 생각은 미친 짓 같다. 불과 몇 해 전 로마 원로원은 철학자 금지령까지 내렸는데, 아테네는 바로 그 달갑지 않은 사람들을 보내 자기를 대신해 논쟁하고 연설하게 했다. 군인도, 전문 외교관도, 변호사도, 선물이나 뇌물도 아니었다. 왜일까. 절박한 때에는 절박한 수단이 필요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뒤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끝없는 습격과 역습에 시달렸고, 수많은 왕과 공국이 흥하고 망했다. 마케도니아 왕들이 권력을 지키려 경쟁자와 싸우는 동안 아테네는 앞선 한 세기 반의 대부분을 주둔군 아래에서 보냈고, 그 틈에 로마는 테베레 강가의 작은 도시에서 식민 야망을 지닌 국제 패권국으로 서서히 자라났다. 아테네와 이웃 사이의 분쟁을 감독한 로마 쪽 행정관들은 아테네에 불리하게 판결하며 500탈란트라는 막대한 벌금을 매겼다. 거의 낼 수 없는 액수였기에 아테네는 몇 안 되는 무기, 곧 철학자로 맞섰다. 두 도시의 지도자 누구도 몰랐지만, 그것은 한 세기에 걸친 문화 패권 싸움의 첫 포성이었고, 스토아가 교실을 나와 권력의 무대로 들어선 첫 큰 걸음이었다.

어법

- **In 155 BC, Diogenes of Babylon, the fifth leader of the Stoa, was sent on a diplomatic mission from Athens to Rome** : the fifth leader of the Stoa = 주어와 동격. was sent = 수동(아테네가 '보낸' 사람). from A to B.
- **There, he, along with the heads of the other great philosophical schools of Greece, would give a series of lectures** : along with ~ 는 삽입구라 동사의 수를 바꾸지 않는다(주어 he). would = 과거에서 본 미래(~하게 된다).
- **This might seem like a minor event, yet it would change not only Rome but the world** : seem like + 명사. yet = 그러나(접속사). not only A but (also) B.
- **the idea of sending a group of old philosophers of rival schools to a city notoriously hostile to philosophy seems crazy** : 주어 the idea(단수) + 긴 수식 → seems. a city (that is) notoriously hostile to ~ = 형용사구 후치 수식. 변형 → seem은 오답.
- **Just a few years earlier, the Roman Senate had decreed an outright ban on philosophers** : had decreed = 과거완료(사절 파견보다 먼저 일어난 일). a ban on ~ = ~에 대한 금지.
- **Into this breach, Rome slowly gained power, growing from a small city on the Tiber to an international hegemon** : 부사구(Into this breach)가 문두에 왔지만 주어 + 동사 어순 그대로(도치 아님). growing ~ = 결과를 덧붙이는 분사구문.
- **Supervising a dispute between Athens and a neighbor, Roman-controlled magistrates had decided against Athens** :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 = 주절 주어(magistrates). 행정관이 분쟁을 감독'하는' 쪽 → 능동 Supervising. 변형 → Supervised는 오답.
- **the first salvo in what would be a century-long battle for cultural supremacy** : 전치사 in + what 절(what = the thing that). century-long = 하이픈 복합 형용사(century에 -s 없음).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diplomatic	외교의	ambassadorial	—
notoriously	악명 높게	infamously	—
hostile	적대적인	unfriendly	friendly
decree (v.)	(법령으로) 명하다	order, proclaim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outright	전면적인	complete, total	partial
undesirable (n.)	달갑지 않은 사람	outcast	—
bribe	뇌물	payoff	—
garrison	주둔군	troops	—
hegemon	패권국	dominant power	—
magistrate	행정관, 치안 판사	official, judge	—
scarcely	거의 ~않다	hardly, barely	easily
dispatch	파견하다	send	recall
salvo	일제 사격	volley, opening shot	—
supremacy	패권, 우위	dominance	inferiority

내용 일치 155 BC · 다섯 번째 수장 · 아테네 → 로마 · 원로원의 철학자 금지령은 '몇 해 전' · 아테네가 보내지 않은 것 = 군인 · 전문 외교관 · 변호사 · 선물과 뇌물 · 주둔은 앞선 한 세기 반의 대부분 · 벌금 500탈란트. **밑줄 의미** Desperate times required desperate measures = 비상한 때라 비상한 수단(철학자)을 썼다 / the first salvo = 한 세기 문화 패권 싸움의 첫 포성.

> **한 줄 요약** 500탈란트 벌금 앞에서 아테네는 철학자를 무기로 로마에 보냈고, 그것은 문화 패권 싸움의 첫 포성이자 스토아가 교실을 나온 첫걸음이었다.

6-2 바빌론의 디오게네스, 그리고 남는 것 50쪽 ¶6 ~ 51쪽 ¶3

원문 위치 원서 50쪽 ¶6 ~ 51쪽 ¶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0쪽 ¶6 첫 문장	So it came to be that	it came to be that = 그리하여 ~하게 되었다
▲	50쪽 ¶6 첫 문장	the first man the Athenians turned to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 전치사 남김
▲	50쪽 ¶6 둘째 문장	Hailing from the city of Seleucia in what today is	분사구문 + 전치사 + what절
★	50쪽 ¶6 넷째 문장	far too pragmatic for that	빈칸 후보(이 장의 핵심어) + far too
▲	50쪽 ¶7 셋째 문장	As far as we know	한정 표현 — 사실로 단정 금지
◆	50쪽 ¶7 마지막 문장	not a challenger like Aristo or a fighter like	밑줄 후보: 3장 · 4장의 별명
▲	51쪽 첫 줄	a brilliant thinker able to communicate	형용사구 후치 수식
●	51쪽 첫 줄	credibly	반전 후보 → unconvincingly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1쪽 ¶1 둘째 문장	inspired by what he'd read of	what절 + 과거완료
▲	51쪽 ¶1 넷째 문장	It's not what you say that lives on	강조구문(what절 강조)
★	51쪽 ¶1 다섯째 문장	the example that you set	요지·빈칸 1순위
◆	51쪽 ¶2 둘째 문장	One of them	지칭: 제자 중 한 명 = Carneades
●	51쪽 ¶2 둘째 문장	an abrasive contrarian	반전 후보 → gentle
▲	51쪽 ¶2 마지막 문장	had been drawn ... and ended up serving	과거완료 수동 + end up -ing
▲	51쪽 ¶3 첫 문장	it says something ... that these thinkers would be entrusted	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
▲	51쪽 ¶3 둘째 문장	than do our professors today	than 뒤 도치(do + 주어)

내용

아테네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바로 클레안테스가 죽은 해에 태어난 바빌론의 디오게네스였다. 그는 오늘날 바그다드 대도시권에 있는 도시 셀레우키아 출신으로, 아테네에서 크리시포스에게 배웠다. 타르수스의 제논이 학파를 물려받았을 때 그는 아직 젊은이였다. 더 유명한 선배이자 이름이 같은 견유학파 디오게네스와 달리, 그는 반사회적 반항아가 아니었다. 그러기에는 너무 실용적이었다. 약 두 세기 전의 견유학파 디오게네스처럼 통 속에서 자지도, 공공장소에서 추태를 부리지도 않았다. 우리가 아는 한 그는 무난한 옷을 입었고 예의 바르게 토론할 줄 알았다. 그는 아리스토 같은 도전자도, 크리시포스 같은 싸움꾼도 아니었다. 특별히 웃기거나 재치 있지는 않았지만, 아테네의 평범한 시민이자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자기 생각을 믿음직하게 전할 줄 아는 뛰어난 사상가였다. 그는 언어학 · 음악 · 심리학 · 수사학 · 윤리학 · 정치철학에 이르는 여러 분야에서 초기 스토아 사상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그를 스토아로 이끈 것은 창시자 제논의 성품에 대해 읽은 글이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자기 유산을 생각하는 모든 이에게 주는 교훈이다. 우리가 떠난 뒤 남는 것은 우리가 한 말도, 쓴 글도, 지은 것도 아니라 우리가 보인 본보기, 우리가 따라 산 원칙이다. 그가 언제 타르수스의 제논을 이어 수장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제자를 끌어모은 유능한 교사였던 것은 분명하다. 제자 가운데 거친 반대론자 카르네아데스는 훗날 회의주의 아카데미를 이끌게 되는데, 그는 크리시포스의 저작을 공부하다 디오게네스에게 왔고 결국 로마 사절단에서 스승의 동료가 되었다. 이런 사상가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는 사실은 철학의 힘을, 혹은 그 뒤로 철학이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말해 준다. 고대의 철학자는 오늘날의 교수와 다른 자리에 있었다.

어법

- **So it came to be that Diogenes of Babylon, born the year of Cleanthes's death, was the first man the Athenians turned to** : it came to be that ~ = 그리하여 ~하게 되었다. born ~ = 삽입된 과거분사구(= who was born). the first man (whom) the Athenians turned to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전치사 to는 뒤에 남는다.
- **Hailing from the city of Seleucia in what today is metropolitan Baghdad, Diogenes had studied in Athens under Chrysippus** : Hailing from ~ = ~ 출신인(분사구문, 주어 Diogenes). in what today is ~ = 오늘날 ~인 곳에(what = the place that). study under + 사람 = ~에게 배우다.
- **He was far too pragmatic for that** : far too + 형용사 = 지나치게 ~하다(far가 too를 강조). for that = 그렇게 되기에는(반사회적 반항아가 되기에는).

- **He wasn't notably funny or clever, but he was a brilliant thinker able to communicate his ideas credibly** : a thinker (who was) able to ~ = 형용사구 후치 수식. credibly = communicate를 꾸미는 부사. 변형 → credible은 오답.
- **Plutarch tells us he was inspired by what he'd read of the founder Zeno's character** : tells us (that) ~. what =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he'd (= he had) read = 감화되기 전에 읽은 것(과거완료).
- **It's not what you say that lives on after your time; it's not what you write or even what you build** : It ~ that 강조구문으로 what절(what you say)을 강조. 강조되는 what절은 단수 취급 → lives.
- **He had been drawn to Diogenes through the study of the works of Chrysippus, and ended up serving as one of his counterparts** : had been drawn = 과거완료 수동(이끌려 '온'). end up -ing = 결국 ~하게 되다. 변형 → ended up to serve는 오답.
- **in the ancient world, philosophers occupied a different place than do our professors today** : than 뒤의 도치(do + 주어). 비교 대상 = philosophers / our professors. 도치하지 않은 than our professors do 도 맞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hail from	~ 출신이다	come from	—
metropolitan	대도시(권)의	urban	rural
mantle	(상징적) 지위, 수장 자리	role, position	—
predecessor	선배, 전임자	forerunner	successor
namesake	이름이 같은 사람	person of the same name	—
antisocial	반사회적인	unsociable	sociable
pragmatic	실용적인	practical, realistic	idealistic
civil	예의 바른	polite, courteous	rude
credibly	믿음직하게	convincingly	unconvincingly
legacy	유산	heritage	—
abrasive	거친, 신경을 긁는	harsh, rough	gentle
contrarian	반대론자	dissenter	conformist
counterpart	(같은 일을 하는) 동료, 상대	colleague, equivalent	—
entrust	맡기다	assign, hand over	withhold

내용 일치 출생 = 클레안테스가 죽은 해 · 셀레우키아(오늘날 바그다드 대도시권) · 스승 = 크리시포스 · 견유학파 디오게네스는 약 두 세기 앞선 사람 · 감화의 계기 = 제논의 성품에 대해 읽은 것(플루타르코스) · 카르네아데스 = 디오게네스의 제자, 훗날 회의주의 아카데미 수장. **지칭** 50쪽 ¶6 his own more famous predecessor and namesake = Diogenes the Cynic / 51쪽 ¶2 One of them = Carneades(them = 디오게네스의 제자들), one of his counterparts의 his = Diogenes.

> **한 줄 요약** 도전자도 싸움꾼도 아닌 실용적 사상가 디오게네스는 제논의 본보기에 감화되어 스토아로 왔고, 제자 카르네아데스와 함께 로마 사절단에 올랐다.

6-3 바보들의 도시와 절제의 힘 51쪽 ¶4 ~ 52쪽 ¶1

원문 위치 원서 51쪽 ¶4 ~ 52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1쪽 ¶4	followed by addresses …, all intended to	과거분사구 + 독립 분사구
▲	51쪽 ¶4	thereby softening the sentiment	thereby + 분사(결과)
▲	51쪽 ¶5 셋째 문장	to a now larger crowd began to argue … just as vehemently as	부사구 앞세움 + as ~ as 원급
●	51쪽 ¶5 셋째 문장	against justice	반전 후보 → for(찬반 뒤집기)
▲	51쪽 ¶5 마지막 문장	demanded that the brash Carneades be sent home	요구 동사 + that S (should) 동사원형
●	51쪽 ¶6 첫 문장	a calming message	반전 후보 → provocative
▲	51쪽 ¶6 첫 문장	one that presented Athens as a better ally than enemy	one = a message / present A as B
▲	51쪽 ¶6 넷째 문장	might have argued that … would have been less beneficial … than	might have p.p.(추측) + 열등 비교
★	51쪽 ¶6 마지막 문장	"restraint and sobriety"	빈칸 1순위
▲	51쪽 ¶7 첫 문장	what made him such a great real-world philosopher	what절 보어 + such a + 형 + 명
◆	52쪽 첫 줄	"a city of fools"	밑줄 의미: 로마인 전체를 어리석다고 모욕
●	52쪽 첫 줄	prudent	반전 후보 → reckless(서답형 단어)
◆	52쪽 첫 줄	he blamed Diogenes	지칭: he = Carneades
◆	52쪽 첫 줄	did not rise to provocations	밑줄 의미: 도발에 응하지 않음
◆	52쪽 ¶1 둘째 문장	"I'm not angry, … but I'm not sure whether I should be."	밑줄 의미: 유머로 도발을 흘려보냄
▲	52쪽 ¶1 셋째 문장	So too did he shrug off	So + 조동사 + 주어 도치

내용

사절의 임무는 공개 강연으로 시작해 원로원 연설로 이어졌다. 모두 아테네 대학파 수장들의 높은 교양과 학식을 보여 주어, 로마의 기소와 판결을 둘러싼 감정을 누그러뜨리려는 것이었다. 출발은 좋지 않았다. 먼저 연단에 선 카르네아데스는 넋을 잃은 많은 청중 앞에서 정의를 주제로 유창하게 논했다. 그런데 이튿날 더 많은 군중 앞에서 그는 전날만큼이나 격렬하게 정의를 반박하기 시작했다. 이를 지켜본 대 카토, 로마에서 가장 냉철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큰 시민 가운데 한 사람은 경악했다. 한 주장을 펴고 곧바로 그것을 논박하다니,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그는 이 뻔뻔한 카르네아데스가 로마의 젊은이를 더 타락시키기 전에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디오게네스가 원로원에서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로마를 진정시키는 메시지, 곧 아테네가 적보다 동맹으로서 더 낫다는 것을 보여 주는

메시지였다. 연사들은 아마 정의의 힘을 이야기해 그리스인이 정의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보여 주라는 과제를 받았을 것이다. 카르네아데스의 자만이 이 메시지를 망칠 뻔했지만, 다행히 디오게네스와 세 번째 연사 크리톨라오스는 충분히 세련되고 설득력이 있었다. 전략가 디오게네스는 가혹한 처벌보다 자비가 로마에 더 이롭다고 주장했을지도 모른다. 로마인들은 그의 "절제와 냉철함"에 감탄했다고 전해지는데, 과시적이고 눈치 없는 동료와의 대비가 그것을 더 돋보이게 했을 것이다. 카르네아데스는 한 연설에서 로마를 "바보들의 도시"라 불렀다. 관대한 처분을 청하러 온 사람이 할 신중한 말은 아니었다. 더 나쁘게도, 그 모욕에 로마인들이 기분이 상하자 그는 디오게네스를 탓했다. 제논 이래 스토아는 현자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디오게네스는 거칠어지는 대신 모든 의미에서 외교적이었다. 도발에 넘어가지도, 갈등에 휘말리지도 않았다. 우리는 그가 카르네아데스의 자멸적인 소동과 로마 청중의 야유를, 예전에 로마에서 한 십 대에게 침 세례와 야유를 받았을 때와 같은 침착함으로 받아넘겼으리라 상상할 수 있다. 그때 그는 눈을 반짝이며 "화나지는 않았소. 하지만 화를 내야 하는지는 모르겠소"라고 답했다. 그는 아테네의 임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을 그렇게 흘려보냈다. 걸린 것이 너무 많았다.

어법

- **The diplomatic mission began in a series of public lectures, followed by addresses to the Senate itself, all intended to show off ~, thereby softening the sentiment** : followed by ~ = 과거분사구(강연 '뒤에 이어진' 연설). all intended to ~ = 독립 분사구(= all of which were intended to). thereby + -ing = 그럼으로써 ~하다(결과).
- **to a now larger crowd began to argue against justice just as vehemently as he had spoken hours before** : 부사구(to a now larger crowd)가 동사 앞으로 나온 어순(주어 he는 and 앞에서 공유). just as + 부사 + as = 꼭 ~만큼. had spoken = 대과거.
- **He demanded that the brash Carneades be sent home before he could corrupt any more of Rome's youth** : demand that + S + (should) 동사원형 → be sent(수동). 변형 → was sent는 시험에서 오답으로 본다.
- **it was clearly a calming message, one that presented Athens as a better ally than enemy** : one = a message(앞 명사를 받는 대명사). present A as B = A를 B로 내세우다.
- **Diogenes might have argued that harsh punishments would have been less beneficial to Rome than mercy** : might have p.p. = ~했을지도 모른다(추측 — 사실로 단정 금지). less + 원급 + than = 열등 비교.
- **We are told that the Romans were awed by Diogenes's "restraint and sobriety," which was likely heightened by the contrast** : We are told that ~ = ~라고 전해진다(전승). be awed by = ~에 감탄하다. 콤마 + which = 계속적 용법. likely = 아마(추측).
- **We can imagine him responding to Carneades's self-destructive antics ~ with the same aplomb that he had once dealt with being spit on and heckled by a teenager** : imagine + O + -ing(그가 ~하는 것을 상상하다). being spit on and heckled = 수동 동명사(침 세례와 야유를 '당함'). We can imagine = 저자의 상상이다.
- **So too did he shrug off everything that distracted from this mission from Athens** : So (too) + 조동사 + 주어 = 그 역시 그렇게(도치). 일반동사 shrug의 과거 → did he shrug off.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ndictment	기소	charge, accusation	acquittal
spellbound	넋을 잃은	enthralled	bored
vehemently	격렬하게	forcefully	mildly
sober	냉철한, 진지한	serious, level-headed	frivolous
brash	뻔뻔한, 무례한	impudent, cocky	modest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orrupt (v.)	타락시키다	deprave	purify
calming	진정시키는	soothing	provocative
persuasive	설득력 있는	convincing	unconvincing
restraint	절제	self-control	excess
showboating	과시하는	showy, flashy	modest
prudent	신중한	wise, careful	reckless
leniency	관대한 처분	mercy	severity
provocation	도발	taunt	—
aplomb	침착함	composure, poise	panic

내용 일치 먼저 연설한 사람 = 카르네아데스(첫날 정의 옹호, 이튿날 반박) · 경악한 사람 = 대 카토 · 세 번째 연사 = 크리톨라오스 · 디오게네스의 연설 내용은 모름(자비를 주장했을지도) · '바보들의 도시' = 카르네아데스의 말 · 침 뱉은 사람 = 로마의 십 대. **지칭** 51쪽 ¶6 his showboating and tone-deaf compatriot = Carneades / 52쪽 첫 줄 his hosts = 로마인, he blamed Diogenes의 he = Carneades / 52쪽 ¶1 him = Diogenes. **밑줄 의미** did not rise to provocations = 도발에 응하지 않았다 / I'm not sure whether I should be = 모욕을 알아채면서도 웃음으로 흘려보냄.

> **한 줄 요약** 카르네아데스가 정의를 뒤집고 로마를 '바보들의 도시'라 부르는 동안, 디오게네스는 도발에 넘어가지 않는 절제와 냉철함으로 로마인을 감탄시켰다.

6-4 100탈란트, 그리고 교실을 나선 철학 52쪽 ¶2 ~ 53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52쪽 ¶2 ~ 53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2쪽 ¶2 첫 문장	For all the hoopla about	for all + 명사 = ~에도 불구하고
●	52쪽 ¶2 첫 문장	a resounding success	반전 후보 → failure
★	52쪽 ¶2 둘째 문장	five hundred … to one hundred	숫자 — 서답형 후보
▲	52쪽 ¶2 셋째 문장	as appalled as he was by	as + 형용사 + as + S + V = 양보
▲	52쪽 ¶2 마지막 문장	would not only not escape … but would become	not only not A but B
◆	52쪽 ¶2 마지막 문장	His great-grandson	지칭: 대 카토의 증손자 = Cato the Younger
▲	52쪽 ¶3 첫 문장	it was actually Greece and the Stoics themselves who gained	강조구문(It was ~ who)
★	52쪽 ¶3 둘째 문장	primarily a classroom exercise	요약·빈칸 후보
●	52쪽 ¶3 마지막 문장	had tuned out the real world	반전 후보 → engaged with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2쪽 ¶4 둘째 문장	What need did they have for anything else?	수사의문(= 필요 없었다)
●	52쪽 ¶4 4~6번째 문장	Insular. Sheltered. Self-absorbed.	반전 후보 → open-minded
▲	52쪽 ¶4 마지막 문장	must participate in public life unless they are unable	unless = if ~ not
▲	52쪽 ¶5 둘째 문장	is aware of no Stoic writings concerned with	과거분사 후치 수식
★	52쪽 ¶5 마지막 문장	dealing with politics only in the abstract	빈칸·요약 후보
◆	53쪽 첫 줄	little more than arguments about different types of utopia	밑줄 의미: 현실과 먼 이상향 논쟁
★	53쪽 첫 줄	only the sage is truly fit for political leadership	빈칸 후보(초기 스토아의 정치 명제)

내용

방문 사절단을 둘러싼 소란과 카르네아데스의 모순된 강연을 둘러싼 열띤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인 정치 임무는 대성공이었다. 벌금은 500탈란트에서 100탈란트로 줄었고, 세 사람, 특히 디오게네스의 명성이 로마인의 마음에 굳게 자리 잡았다. 자신이 본 것에 그토록 질색했던 대 카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절의 지혜를 증명하게 된다. 그의 증손자 소 카토는 철학의 '타락'을 피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가장 위대한 스토아 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 그것으로 영원한 영광을 얻었다. 그러나 이 교류에서, 아니 교류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가장 많이 얻은 쪽은 사실 그리스와 스토아 자신이었다. 앞선 몇 세기 동안 철학은 주로 교실의 연습이었다. 좋은 삶, 진리와 의미를 추구했지만 무엇보다 학생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견유학파, 플라톤학파, 아리스토텔레스학파, 에피쿠로스학파, 심지어 스토아까지 거의 모든 학파가 사회와 정치라는 현실 세계를 외면하고 자기들끼리 '덕'의 정의를 두고 다퉜다.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요람이었을지 몰라도 작은 마을 같았다. 폐쇄적이고, 보호받고, 자기에게 빠져 있었다. 제논은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스토아는 공적 생활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고 몇몇 제자는 그렇게 했지만, 대부분은 이때까지 그러지 않았다. 로마의 부상, 그리고 디오게네스가 응한 것 같은 위기 속 공직의 부름이 그것을 바꾸었다. 디르크 오빙크는, 이전 정치철학에 해박했던 키케로조차 디오게네스 이전에 실천적 정치 문제를 다룬 스토아 저술을 알지 못했다고 쓴다. 장군으로 싸우다 전사하거나 왕에게 조언한 덜 알려진 스토아도 있었지만, 학파의 교사들은 정치를 추상적으로만 다루며 싸움판 밖에 머물렀다. 초기 스토아 정치사상은 제논의 급진적인 『국가』에서 시작해 크리시포스의 『정의에 관하여 플라톤을 반박함』과 『권고』로 이어지며 대체로 플라톤의 『국가』와 『법률』에 맞서는 방식으로 짜였다. 이 논쟁들은 여러 유토피아를 둘러싼 말다툼에 지나지 않았다. 디오게네스 이전 스토아 정치사상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크리시포스가 아마 제논에게서 이어받았을, 현자만이 진정으로 정치를 이끌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었다.

어법

- **For all the hoopla about these visiting ambassadors, ~, this historic political mission was a resounding success** : for all + 명사 = ~에도 불구하고(= despite). 4장의 For all his disputes with Aristo와 같은 구문.
- **The fine was lowered from five hundred talents to one hundred** : 수동(벌금이 '낮춰졌다'). from A to B. one hundred 뒤에 talents 생략.

- **Cato the Elder, as appalled as he was by what he witnessed, would unknowingly be proof of the wisdom of the mission** : as + 형용사 + as + S + V = ~이긴 했지만(양보). be appalled by = ~에 질색하다. would = 과거에서 본 미래.
- **His great-grandson, Cato the Younger ~, would not only not escape the "corruption" of philosophy, but would become one of the greatest students of Stoicism** : not only A but (also) B의 A 자리에 부정(not escape)이 들어간 형태 — '피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 되었다'. corruption의 따옴표 = 대 카토의 눈으로 본 '타락'(반어).
- **But it was actually Greece and the Stoics themselves who gained the most from this exchange** : It was ~ who 강조구문(사람·집단 강조). themselves = 강조의 재귀대명사.
- **While Zeno had maintained that Stoics must participate in public life unless they are unable ~ most, to this point, did not** : while = ~이긴 했지만(양보·대조). unless = if ~ not. 문장 끝 did not = did not participate의 생략.
- **Cicero, "whose knowledge of previous political philosophy was extensive," ~ "is aware of no Stoic writings concerned with practical political questions before Diogenes."** : 주어 Cicero와 동사 is 사이에 관계절과 삽입절(Dirk Obbink writes ~)이 끼어 있다. writings (which are) concerned with ~ = 과거분사 후치 수식.
- **Stoic thinking on politics ~ was best expressed by Chrysippus, who presumably got it from Zeno, that only the sage is truly fit for political leadership** : 수동 + 계속적 용법 who. 문장 끝 that절 = Stoic thinking의 내용을 밝히는 동격절(주어와 멀리 떨어져 있다). presumably = 아마(추측).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hoopla	소란, 야단법석	fuss, commotion	calm
resounding	대단한, 완전한	great, decisive	dismal
appalled	질색한, 경악한	horrified	delighted
unknowingly	모르는 사이에	unwittingly	knowingly
primarily	주로	mainly	secondarily
tune out	외면하다	ignore	pay attention to
cradle	요람, 발상지	birthplace	—
insular	편협한, 고립된	narrow-minded	open-minded
sheltered	보호받은, 세상 물정 모르는	protected	exposed
self-absorbed	자기에게 빠진	self-centered	selfless
extensive	폭넓은	broad, wide	limited
fray	싸움, 논쟁	fight, conflict	—
in the abstract	추상적으로	theoretically	in practice
utopia	이상향	ideal state	dystopia

내용 일치 벌금 500 → 100탈란트 · 명성이 굳어진 사람 = 세 사람, 특히 디오게네스 · 소 카토 = 대 카토의 증손자 · 가장 많이 얻은 쪽 = 그리스와 스토아 · 공적 참여를 주장한 사람 = 제논(대부분은 참여하지 않음) · 키케로의 평가를 전한 학자 = 디르크 오빙크 · 현자만 다스릴 자격 = 크리시포스(아마 제논에게서). **밑줄 의미** a classroom exercise = 현실과 동떨어진 교실 속

연습 / out of the fray = 현실 정치의 싸움판 밖 / little more than arguments about different types of utopia = 현실성 없는 이상향 논쟁.

> **한 줄 요약** 사절은 벌금을 100탈란트로 깎으며 성공했고, 더 큰 수확은 교실과 유토피아 논쟁에 갇혀 있던 스토아가 현실 정치로 나오게 된 것이었다.

6-5 현자만의 도시는 없다 53쪽 ¶1~¶5

원문 위치 원서 53쪽 ¶1~¶5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 첫 문장	hardly one that scales	밑줄 의미: 규모를 키우면 통하지 않음
▲	¶1 둘째 문장	How possible would it be to find …, let alone to rule	가주어 it + let alone
▲	¶1 셋째 문장	If Carneades is any indication	~로 판단하건대
▲	¶1 넷째 문장	Exactly why Diogenes would … makes sense	의문사절 주어 + 단수 동사
●	¶1 넷째 문장	the tiny world of Greece … the enormous shadow	반전 후보(크기 뒤집기)
▲	¶2 첫 문장	decided not to pay even the reduced fine that	not to V + 목적격 that
◆	¶2 마지막 문장	got away with its bluff	밑줄 의미: 허세가 통해 벌을 면함
▲	¶3 첫 문장	it must have been an illustrative political moment	must have p.p.(강한 추측)
◆	¶3 둘째 문장	"Plato's Republic" / Zeno's Republic	밑줄 의미: 현자들만의 이상 국가
●	¶3 셋째 문장	confused and flawed people	반전 후보 → perfect
▲	¶3 마지막 문장	What came from it was	what절 주어 + 단수 동사
★	¶3 마지막 문장	a crucial sense of pragmatism	빈칸 1순위
★	¶4 마지막 문장	for serving the common good, for serving one's country	주장·빈칸 후보
▲	¶5 첫 문장	No longer was it sufficient for the philosopher to fantasize	부정어 도치 + 가주어 it + for 의미상 주어
▲	¶5 둘째 문장	Nor were the quips … sufficient either	Nor + 도치
★	¶5 일곱째 문장	To forge compromises.	빈칸 후보(철학자의 쓰임)

내용

현자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다는 생각은 매력적이지만 규모를 키우면 통하지 않는다. 원로원을 채울 만큼, 하물며 제국을 다스릴 만큼 현자를 찾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카르네아데스를 보면 아테네는 로마로 보낼 사절단 하나를 채울 현자도 찾기 어려웠던 것 같다. 디오게네스가 왜 갑자기 더 실천적인 정치철학을 앞세웠는지는, 그의 생애 동안 일어난 권력 이동, 곧 그리스라는 작은 세계가 떠오르는 거대한 로마의 그늘 아래로 들어간 일을 이해하면 납득이 된다. 로마 사절은 결국 성공했지만, 아테네는 로마 행정관들이 매긴 깎인 벌금조차 내지 않기로 했다. 이웃 도시를 습격한 데 대한 벌금 때문에, 그것도 철학과 정의론으로 로마인을 그토록 능숙하게 홀린 뒤에, 로마가 전쟁을 벌였겠는가. 그럴 리 없었고, 아테네의 허세는 통한 듯하다. 디오게네스에게 이것은 정치를 생생히 보여 준 순간이었을 것이다. 몇 세기 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삶이 "플라톤의 『국가』"가 아님을 스스로 일깨우게 되지만, 디오게네스는 삶이 제논의 『국가』도 아님을 보았다. 그가 본 것은 혼란스럽고 결점 많은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었다. 로마와 외교 무대에 들어서며, 어쩌면 스토아 가운데 가장 먼저, 이 진실을 직접 본 그에게서 철학에 절실히 필요했던 실용주의가 나왔다. 아리스토는 철학을 현자만의 것, 개인의 자기실현을 위한 것으로 여긴 듯하다. 그의 스토아는 교실에서는 잘 통하고 흥미로운 논쟁을 낳았지만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디오게네스에게 스토아는 공동선과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생각의 방식이자 규칙이었다. 현자만으로 작은 도시를 채워 최선의 사회 질서를 이루는 공상도,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경멸한 견유학파 디오게네스의 재담과 도발도 이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성 · 덕 · 논리 · 윤리라는 철학자의 기술이 스토아 밖, 아고라 밖에서 급히 필요했다. 문제를 풀고, 틀을 세우고 법을 쓰고, 행정관을 이끌고, 타협을 이루고, 군중을 설득하고 그 격정을 억누르고, 도시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어법

- **It's an appealing notion, but hardly one that scales** : one = a notion. hardly = 거의 ~ 않다(부정어). scale = 규모를 키워도 통하다(자동사).
- **How possible would it be to find enough sages to fill the Senate, let alone to rule an empire?** : 가주어 it – 진주어 to find. let alone = ~은 말할 것도 없고(부정의 맥락 뒤). 수사의문(= 불가능하다).
- **Exactly why Diogenes would suddenly prioritize a more practical political philosophy makes sense when you understand** : 의문사절(Exactly why ~ philosophy)이 주어 → 단수 동사 makes. 간접의문문이라 평서문 어순(why + S + V).
- **we know that Athens decided not to pay even the reduced fine that Rome's magistrates had levied** : decide not to V(to부정사의 부정은 not을 앞에). reduced = 과거분사 수식(깎인). that = 목적격 관계대명사, had levied = 대과거.
- **For Diogenes, it must have been an illustrative political moment** : must have p.p. = ~이었음이 틀림없다(강한 추측 — 원서가 확인한 사실이 아니다).
- **What came from it was a crucial sense of pragmatism that the philosophy desperately needed** : what절 주어(단수) + was. that = 목적격 관계대명사(needed의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음).
- **No longer was it sufficient for the philosopher to fantasize about populating a small city exclusively with wise people** : 부정 부사(No longer)가 문두 → be동사 + 주어 도치(was it). it = 가주어, for the philosopher = 의미상 주어, to fantasize = 진주어. 변형 → No longer it was는 오답.
- **Nor were the quips and provocations of Diogenes the Cynic ~ sufficient either** : Nor + be동사 + 주어 도치(복수 주어 quips and provocations → were). 원문은 nor와 either를 함께 썼지만, 영작에서는 Nor were ... sufficient만으로 충분하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ppealing	매력적인	attractive	unattractive
scale (v.)	규모를 키워도 통하다	—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let alone	~은 말할 것도 없고	not to mention	—
prioritize	우선시하다	put first	neglect
monolith	거대한 단일 세력	colossus	—
levy	(세금·벌금을) 부과하다	impose	waive
dazzle	현혹하다	amaze, impress	bore
bluff	허세	bravado, pretense	—
flawed	결점 있는	imperfect	perfect
pragmatism	실용주의	practicality	idealism
self-actualization	자기실현	self-fulfillment	—
the common good	공동선, 공익	public interest	self-interest
disdain	경멸	contempt, scorn	respect
forge (v.)	(합의를) 이루어 내다	build, create	break

내용 일치 아테네는 깎인 벌금도 내지 않기로 함(허세가 통한 듯) · 벌금의 이유 = 이웃 도시 습격 · "플라톤의 『국가』"를 말한 사람 = 몇 세기 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 철학을 현자만의 것으로 본 사람 = 아리스토 · 알렉산드로스를 경멸한 사람 = 견유학파 디오게네스 · 철학자의 기술 = 이성 · 덕 · 논리 · 윤리. **밑줄 의미** hardly one that scales = 소수에게는 맞아도 나라 · 제국 규모에서는 통하지 않음 / got away with its bluff = 낼 생각 없는 벌금을 내지 않고도 무사함 / Zeno's Republic = 현자만 사는 이상 국가.

> **한 줄 요약** 현자만의 도시라는 꿈이 로마라는 현실 앞에서 통하지 않음을 본 디오게네스는 스토아를 공동선과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실용의 철학으로 바꾸었다.

6-6 사는 사람이 조심하라, 그리고 사라진 저술 53쪽 ¶6 ~ 54쪽 ¶8

원문 위치 원서 53쪽 ¶6 ~ 54쪽 ¶8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3쪽 ¶6 첫 문장	had a mind well suited to politics	과거분사구 후치 수식
●	53쪽 ¶6 첫 문장	crafty	반전 후보 → naive
▲	53쪽 ¶6 셋째 문장	was obligated to fully disclose all information	be obligated to V + 분리 부정사
▲	53쪽 ¶6 셋째 문장	likely to drive the price down	(which were) likely to V
▲	53쪽 ¶6 끝 ~ 54쪽 첫 줄	nothing would ever sell if every fact was disclosed	가정법 과거 + 자동사 sell(팔리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4쪽 첫 줄	How could a market work without	수사의문
▲	54쪽 첫 줄	provided he is guilty of no misrepresentation	provided (that) = ~라면(조건)
★	54쪽 ¶1	Caveat emptor ... Buyer beware.	빈칸·서답형 후보
▲	54쪽 ¶2 첫 문장	yet to know these things would benefit you more than to know	to부정사 주어 + 비교
◆	54쪽 ¶2 셋째 문장	picking their pocket with the other	밑줄 의미: 몰래 이익을 챙김
★	54쪽 ¶3 둘째 문장	He struck a balance of interests and competing loyalties	요지·빈칸 후보
▲	54쪽 ¶4 넷째 문장	"not merely conducive to ... but essential"	not merely A but B(형용사 병렬)
◆	54쪽 ¶5	the work of our life	밑줄 의미: 평생 해야 할 일
▲	54쪽 ¶6	a sad fact given that he was	given that = ~을 고려하면
▲	54쪽 ¶7 첫 문장	As Diogenes's works are lost ..., so too was he lost	As ~, so + 도치
★	54쪽 ¶7 셋째 문장	by 150 BC	숫자 — 내용 일치 후보

내용

바빌론의 디오게네스는 분명 노련했고 정치에 잘 맞는 머리를 가졌다. 키케로는 그가 제자 안티파트로스와 땅이나 곡물 선적분을 파는 일의 윤리를 두고 벌인 논쟁을 전한다. 제자는 파는 사람이 모든 정보를 밝혀야 한다고 믿었다. 곧 다른 곡물선 여러 척이 들어와 값이 떨어질 것 같다거나, 땅의 호가가 시장 가치보다 높을 것 같다는 사실까지 말이다. 그래야만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것이다.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모든 사실을 밝힌다면 아무것도 팔리지 않으리라고 반박했다. 서로의 이익 추구 없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겠는가. 게다가 파는 사람에게는 투자자와 가족에 대한 의무도 있다. 키케로가 기록한 그의 변론은 이렇다. 파는 사람은 나라의 관습법이 정하는 한도에서 물건의 결함을 밝혀야 하지만, 나머지는 거짓으로 꾸미지 않는 한 최대한 유리하게 팔아도 된다.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한 그의 논리는 Caveat emptor, 곧 사는 사람이 조심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신들의 본성이나 최고선을 감추는 것은 아니며, 그런 것을 아는 편이 밀값이 내렸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이롭다고 했다. 저자는 이 말이, 아마 낼 생각도 없던 벌금을 깎으러 가서 한 손으로는 로마인을 홀리고 다른 손으로는 그들의 주머니를 턴 외교관의 실용 철학을 잘 요약한다고 본다. 아테네 대 로마, 빚을 갚는 일 대 부당한 판결에 맞서는 일처럼 경쟁하는 이익 사이에서 그는 어떻게든 균형을 잡았다. 외교관과 정치 조언자의 역할 그대로다. 스토아 내부의 복잡한 논쟁도 그렇게 정리했다. 모든 것에 무관심하라는 아리스토의 말은 비현실적이었다. 부는 "즐거움과 건강을 얻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필수적"이다. 덕보다 중요하지는 않지만, 얻을 수 있다면 중요하다. 키케로의 요약에 따르면 덕은 "평생의 꾸준함, 굳은 의지, 일관성"을 요구한다. 돈은 삶을 편하게 하지만 덕은 삶의 과업이다. 안타깝게도 그의 글은 거의 남지 않았다. 베수비오 화산 분화로 파괴된 도시에 묻혀 있다 발견된 문헌에 따르면 그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보다도 더 많이 인용된 고대의 저자였는데도 말이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물론, 언제 죽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키케로는 그가 사절 몇 해 뒤인 기원전 150년에는 이미 죽고 없었다고 하고, 루키아노스는 80세까지 살았다고 하며, 다른 자료는 10년을 더, 혹은 제자 안티파트로스가 수장을 이을 때까지 살았다고 한다. 어쨌든 철학의 이 왕자는 영원히 살지 못했지만, 정치적 힘으로서의 스토아와 그가 보여 준 성품이라는 유산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머지않아 그것은 세계를 정복하게 된다.

어법

- **Cicero tells us about a debate he had with his student Antipater over the ethics of selling a piece of land or a shipment of grain** : a debate (that) he had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over = ~을 두고(쟁점). 전치사 of + 동명사 selling.
- **His student believed that the seller was obligated to fully disclose all information—that several other shipments of grain were coming, likely to drive the price down** : be obligated to V = ~할 의무가 있다. to fully disclose = to와 동사 사이에 부사가 낀 분리 부정사. 대시 뒤 that절 = information의 구체적 내용. likely to ~ = (which were) likely to ~.
- **But Diogenes argued that nothing would ever sell if every fact was disclosed** : 가정법 과거(would sell ~ if ~ was). sell = '팔리다'라는 자동사(능동형으로 수동의 뜻). 가정법의 be동사는 원칙적으로 were이지만 구어에서는 was도 쓴다.
- **he may try to sell them to the best possible advantage, provided he is guilty of no misrepresentation** : provided (that) = ~라는 조건이라면(= if, as long as). be guilty of no ~ = ~의 잘못이 전혀 없다.
- **Wealth, he said, was "not merely conducive to achieving pleasure and good health, but essential."** : not merely A but B — A와 B가 모두 was의 보어인 형용사(conducive / essential). conducive to + 동명사(to는 전치사). 변형 → but essentially는 오답.
- **As Diogenes's works are lost to us, so too was he lost to the world** : As ~, so (too) + be동사 + 주어 = ~이듯 …도 그렇다(so 뒤 도치). are lost / was lost = 상태의 수동.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rafty	노련한, 교활한	cunning, shrewd	naive
disclose	밝히다, 공개하다	reveal	conceal
mutual	서로의	reciprocal	one-sided
defect	결함	flaw, fault	merit
misrepresentation	거짓 진술, 허위 표시	falsification	accurate account
caveat emptor	사는 사람이 조심하라(라틴어)	buyer beware	—
conceal	감추다	hide	reveal
conducive to	~에 도움이 되는	helpful to	harmful to
firmness	굳건함	resolve	weakness
exemplify	모범으로 보여 주다	embody, typify	—

내용 일치 논쟁 상대 = 제자 안티파트로스(전한 사람은 키케로) · 안티파트로스 = 모두 밝혀야 공정 · 디오게네스 = 법이 정한 결함만 밝히고 나머지는 거짓 없이 최대 이익 · 부 = 필수(덕보다 중요하지는 않음) · 사망: 키케로 150 BC / 루키아노스 80세 / 다른 자료 10년 더 또는 안티파트로스 계승까지. **지칭** 53쪽 ¶6 a debate he had의 he = Diogenes, His student · he said의 he = Antipater / 54쪽 ¶2 their pocket = 로마인의 주머니.

> **한 줄 요약** 모든 것을 밝히라는 제자에게 '사는 사람이 조심하라'로 맞선 디오게네스는 이익과 충성, 부와 덕 사이의 균형을 잡았고, 저술은 사라졌어도 정치적 힘으로서의 스토아를 남겼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Lives of the Stoics [Chapter 6 DIOGENES]

범위	Diogenes the Diplomat (원서 PDF 49~54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risto seems to have believed that philosophy belonged to the wise alone, as a private project of self-improvement. Such a philosophy shone in the lecture hall and produced lively arguments, but it could not survive contact with the world. Diogenes took a different view. For him, Stoicism offered both a way of thinking and a code of conduct, and its purpose was to serve the common good and one's own country. Dreaming of a small city filled only with sages was no longer enough; neither were the clever taunts of the Cynic Diogenes. Reason, virtue, logic, and ethics were urgently needed beyond the walls of the school: to solve problems, write laws, guide officials, reach compromises, calm angry crowds, and settle quarrels between cities.

① Philosophy is best practiced by the wise in quiet isolation.
② The Cynics showed the right way to take part in politics.
③ Philosophers should stay out of politics to keep their ideas pure.
④ A good philosopher must first become a skilled lawmaker.
⑤ Philosophy should be put to work for the common good, not kept in the classroom.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 155 BC Athens did something that looks absurd as a diplomatic move. Not long after the Roman Senate had banned philosophers outright, the city chose a group of aging thinkers from competing schools and sent them to Rome to speak for it. There were no soldiers in the delegation, no trained envoys, no lawyers, and no gifts or bribes. Why? Athens was desperate. Since Alexander's death, the Greek world had suffered endless raids, while Rome had grown from a small town on the Tiber into a great power. Now officials under Roman control, judging a quarrel between Athens and a nearby city, had ordered the city to pay five hundred talents, a sum it could hardly afford. Its thinkers were among the very few weapons still in its hands.

① How Rome Learned to Fear Greek Soldiers
② An Unlikely Weapon: Why Athens Sent Philosophers to Rome
③ The Roman Senate's War on Greek Gifts
④ Alexander's Death and the Birth of Stoicism
⑤ Paying in Full: How Athens Cleared Its Debt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What drew Diogenes to Stoicism in the first place? According to Plutarch, he was moved by what he had read about the character of Zeno, the school's founder. Centuries later, this small detail still carries a lesson for anyone who wonders what they will leave behind. Our words fade once we are gone. So, in time, do the books we write and even the things we build. What outlives us is the model we offer others, the principles we actually live by. Zeno's way of life reached across the years and changed the course of a man from Seleucia, who would one day lead the very school that Zeno had founded. A life well lived teaches long after the one who lived it has fallen silent.

① A person's legacy lies in the example of how they lived.
② Books are the most lasting achievement of a philosopher.
③ Great teachers attract students mainly through clever lectures.
④ Reading about others is less useful than direct experience.
⑤ The founders of schools are usually forgotten by later generations.

4. 밑줄 친 he was not angry, but was not sure whether he ought to b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Part of what made Diogenes such an effective real-world philosopher was the way he handled his colleague Carneades. In one speech, Carneades called Rome "a city of fools"—hardly a wise remark from someone who had come to ask for mercy. Worse, when the insult offended the Romans, he put the blame on Diogenes, pointing out that the Stoics since Zeno had held that only the wise were truly qualified to govern. Diogenes refused to take the bait. We can picture him meeting all this with the same calm he had shown when a teenager in Rome spat on him and mocked him. On that occasion, his eyes twinkling, he had replied that he was not angry, but was not sure whether he ought to be.

① he was hiding a deep anger that he planned to act on later
② he made light of the insult instead of letting it provoke him
③ he had not realized that he was being insulted
④ he wanted the crowd to decide how the teenager should be punished
⑤ he believed that a wise man must always show his anger openly

5. 밑줄 친 picking their pocket with the other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lthough the embassy to Rome succeeded, Athens refused to hand over even the reduced penalty. Would Rome really march to war over a penalty for a raid on a neighboring town, right after Athens had charmed it so skillfully with philosophy and fine talk of justice? Hardly. The bluff seems to have worked. The episode fits the practical philosophy of Diogenes well. Here was a diplomat who argued for cutting a fine his city probably never meant to pay, a man who held the Romans spellbound with one hand while picking their pocket with the other. He may have told himself that he was only stopping Rome from treating Athens the same way. Many interests pulled against one another, and somehow he kept them in balance.

① actually stealing coins from the senators during his speeches
② persuading Rome to pay Athens for the damage it had suffered
③ helping Carneades escape before the Romans could arrest him
④ quietly gaining an advantage for Athens at Rome's expense
⑤ secretly working for Rome against the interests of Athens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Diogenes was a capable teacher with many students. One of them was Carneades, a sharp-tongued contrarian who would later lead the Academy of the skeptics; ① he had come to Diogenes through reading the works of Chrysippus. In Rome, Carneades was the first of the envoys to speak, and ② his eloquent defense of justice held a huge crowd spellbound. The following day, before an even larger audience, ③ he attacked justice with exactly the same passion. Among the listeners was Cato the Elder, a man as serious and powerful as any in Rome. What sort of nonsense, ④ he asked, allows a man to argue one side and then tear it down? He insisted that the brash Greek be packed off home before ⑤ he could lead more young Romans astray.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Diogenes of Babylon was born in the year that Cleanthes died. His home city was Seleucia, in what is now the Baghdad metropolitan area, and he was taught by Chrysippus in Athens. When Zeno of Tarsus took charge of the school, Diogenes was still young. He shared his name with Diogenes the Cynic, who had lived roughly two hundred years earlier and was known for sleeping in a barrel. So far as the record shows, the later Diogenes dressed sensibly and argued with courtesy. He was neither especially witty nor especially clever, yet he had a brilliant mind and could present his ideas convincingly as a respectable citizen, and he contributed to fields ranging from music and linguistics to ethics, rhetoric, psychology, and political thought.

① 디오게네스는 클레안테스가 태어난 해에 태어났다.
② 그는 아테네에서 타르수스의 제논에게 배웠다.
③ 그는 특별히 재치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뛰어난 사상가였다.
④ 견유학파 디오게네스는 그보다 약 두 세기 뒤의 인물이다.
⑤ 그는 음악과 언어학에는 기여하지 않았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Unfortunately, little or nothing of what Diogenes wrote has survived. The loss is all the greater because texts discovered buried in the town that Mount Vesuvius destroyed suggest that he was among the most frequently quoted writers of the ancient world, quoted even more often than Plato and Aristotle. Just as his books disappeared, so did the man himself fade from history. We do not know how he died, and we cannot even be sure when. According to Cicero, Diogenes was already dead by 150 BC, just a few years after the embassy to Rome. Lucian, on the other hand, claims that he reached the age of eighty, while other sources claim he survived another decade, or until Antipater, his student, took over the school.

① 디오게네스의 저술은 거의 또는 전혀 남아 있지 않다.
② 베수비오 화산으로 파괴된 도시에서 발견된 문헌에 따르면, 그는 플라톤보다도 더 자주 인용된 저자였다.
③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④ 루키아노스는 그가 80세까지 살았다고 전한다.
⑤ 키케로는 그가 로마 사절 이후 10년을 더 살았다고 전한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Diogenes played a similar balancing role in settling some of the harder questions within Stoicism. Aristo had taught that we ought to treat all things with indifference, a position ① which Diogenes considered unrealistic. Wealth, in his view, was not merely helpful for gaining pleasure and health but ② essentially. It was less important than virtue, of course, yet still worth ③ having if one could get it. Virtue was a different matter: as Cicero sums up his views, it called for steadiness, resolve, and consistency ④ lasting a whole lifetime. Money could make life ⑤ easier, but virtue was the work of life itself.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Despite all the fuss about the Greek visitors and the quarrel caused by Carneades's two opposing lectures, the embassy was a striking success. Rome's officials (A) [lowered / were lowered] the fine to one hundred talents from the original five hundred, while the three envoys, above all Diogenes, won lasting reputations in Roman minds. Cato the Elder, (B) [as appalled / as appalling] as he was by the lectures, would end up proving the mission wise without realizing it. Cato the Younger, his own great-grandson, was not spared philosophy's "corruption" and grew into one of the greatest Stoics, (C) [winning / won] eternal glory through it.

	(A)	(B)	(C)
①	lowered	as appalled	won
②	were lowered	as appalling	winning
③	were lowered	as appalled	winning
④	lowered	as appalling	winning
⑤	lowered	as appalled	winning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The belief that the right to rule belongs to the sage alone is ① appealing, but it does not work on a large scale. Where would anyone find enough sages to staff the Senate, never mind run an empire? Judging by Carneades, Athens struggled to find enough wise men for a single embassy. We can see why Diogenes turned toward a more ② practical politics once we recall how, in his lifetime, little Greece came to lie in the ③ enormous shadow cast by a rising Rome. Generations later, Marcus Aurelius would warn himself not to expect Plato's Republic; Diogenes realized that Zeno's Republic did not describe the world either. He found instead a world crowded with confused and ④ perfect people, and from that discovery came the ⑤ pragmatism that Stoicism badly needed.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The embassy opened with lectures for the public and then speeches before the Senate itself, all meant to display the learning of Athens's leading thinkers and so to soften Roman anger over the charge and the penalty. No record survives of Diogenes's exact words to the senators, but his message was clearly a soothing one: Athens would be worth more to Rome as a friend than as a foe. A shrewd strategist, he may well have argued that mercy would serve Rome better than harsh punishment. Whatever his words, reports say the Romans were deeply impressed by his _____, a quality that probably stood out all the more beside his boastful, tone-deaf companion.

① restraint and sobriety
② fiery passion and boldness
③ skill at arguing both sides of a question
④ noble birth and great wealth
⑤ open criticism of Roman law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The teachers of the school, however, had kept out of the fight, treating politics only as a matter of theory.

Rome's growing power, and the demand that philosophers serve the state in emergencies such as the one Diogenes faced, changed the habits of the Stoics. (①) According to the scholar Dirk Obbink, even Cicero, who knew earlier political philosophy well, could name no Stoic writings on practical politics composed before Diogenes. (②) To be sure, a few little-known Stoics had commanded armies and some had even fallen in battle, while others had advised kings. (③) Early Stoic thinking about the state was shaped largely as an answer to Plato, starting from Zeno's radical Republic and carried on in the works of Chrysippus. (④) Those debates amounted to little more than arguments over which utopia was best. (⑤) Their core idea, which Chrysippus probably took from Zeno, was that political leadership belongs to the sage alone.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Yet the biggest winners of the exchange were the Greeks and the Stoics themselves, or rather the process by which it took place. ① For several centuries, philosophy had been mainly a classroom exercise, concerned with the good life, truth, and meaning, but chiefly for the sake of the student. ② Nearly every school, from the Cynics to the Epicureans and even the Stoics, had ignored social and political life in the real world. ③ The Cynic Diogenes was famous for showing open contempt for Alexander the Great. ④ Instead, the philosophers quarreled among themselves over how virtue should be defined. ⑤ Athens might have been the birthplace of democracy, yet in this respect it resembled a small town: closed, sheltered, and absorbed in itself.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Cicero records a debate between Diogenes and his student Antipater about what a seller of grain or land owes the buyer.

(A) Diogenes disagreed. If every fact had to be revealed, he asked, how could anything ever be sold, and how could a market run without each side seeking its own advantage? A seller, he said, must declare whatever defects the law requires; beyond that, he may sell on the best terms he can, as long as he tells no lies.

(B) As for everything else, his principle could be summed up in two Latin words: Caveat emptor, or "let the buyer beware."

(C) Antipater held that a seller must tell the buyer everything he knows, for example, that more grain ships are on their way and prices will soon fall. Anything less, he insisted, would be unfair and unjust.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oday it would seem odd to hand a group of professors a delicate mission of state, and that says something about how far philosophy has fallen since ancient times. Ancient philosophers held a very different place. When Athens sent its leading thinkers to plead its case in Rome, neither city's leader understood what was beginning: the opening shot in a century-long struggle for cultural supremacy, and the first great stride Stoicism took beyond the lecture hall and into the corridors of power. Diogenes himself was mortal. But the legacy he began, Stoicism as a force in political life together with the character he displayed, was only starting its work, and before long it would conquer the world.

→ Diogenes's mission showed that ancient philosophers could be trusted with (A) _____ affairs, and it launched Stoicism as a lasting (B) _____ force.

① public ..... political
② private ..... military
③ public ..... religious
④ academic ..... commercial
⑤ personal ..... political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In 155 BC, Athens sent the Stoic Diogenes of Babylon to Rome to appeal a fine of five hundred talents. Born in Seleucia, near present-day Baghdad, he had studied under Chrysippus. In Rome his student Carneades argued both sides of justice, horrifying Cato the Elder, while Diogenes's restraint won a cut to one hundred talents, which Athens still never paid. Cicero also records Diogenes debating his student Antipater on what a grain seller must disclose.

<QUIZ>

(1) In what year was Diogenes sent to Rome?
Answer for (1): _____

(2) Near which modern city is Seleucia, Diogenes's birthplace?
Answer for (2): _____

(3) Under whom did Diogenes study in Athens?
Answer for (3): _____

(4) True or false: Athens paid the reduced fine?
Answer for (4): _____

(5) To how many talents was the fine lowered?
Answer for (5): _____

(6) Who was horrified by Carneades's lectures?
Answer for (6): _____

(7) With which student did Diogenes debate selling grain?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Babylon	N. Cato the Elder
B. 150 BC	O. Plutarch
C. Cleanthes	P. 155 BC
D. False	Q. Seleucia
E. one hundred	R. Baghdad
F. Critolaus	S. eighty
G. Cicero	T. Antipater
H. 230 BC	U. Chrysippus
I. Athens	V. Cato the Younger
J. five hundred	W. Rome
K. True	X. 142 BC
L. Zeno of Tarsus	Y. Zeno
M. Carneades	Z. Lucian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로마에 철학자들을 보낸다는 생각은 미친 짓처럼 보인다. (긴 주어 the idea of -ing + 단수 동사)

02 분쟁을 감독하면서, 로마가 통제하는 행정관들은 아테네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분사구문 Supervising / decide against)

03 그는 반사회적 반항아가 되기에는 지나치게 실용적이었다. (far too + 형용사 + to V)

04 오래 남는 것은 네가 하는 말이 아니라 네가 보이는 본보기다. (It's not ~ that ... / the example)

05 카토는 카르네아데스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demand that + S + 동사원형(수동))

06 디오게네스는 가혹한 처벌이 자비보다 로마에 덜 이로웠으리라고 주장했을지도 모른다. (might have p.p. / less ~ than)

07 그는 임무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그렇게 흘려보냈다. (So too did + S + V / shrug off)

08 자신이 본 것에 질색하긴 했지만, 대 카토는 모르는 사이에 그 임무의 지혜를 증명하게 된다. (as + 형용사 + as + S + V(양보))

09 이 교류에서 가장 많이 얻은 쪽은 바로 그리스와 스토아 자신이었다. (It was ~ who 강조)

10 철학자가 현자들로만 작은 도시를 채우는 공상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다. (No longer + 도치 / 가주어 it + for)

11 파는 사람은 거짓으로 꾸미지 않는다면 최대한 유리하게 팔아도 된다. (provided (that) / to the best possible advantage)

12 부는 건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필수적이었다. (not merely A but B(형용사 병렬))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출생·사망 연도(49쪽) / 출신 / 고향 도시	
태어난 해의 의미 / 스승 / 몇 번째 수장	
로마로 사절을 간 해 / 출발한 도시	
사절 몇 해 전 원로원이 내린 조치	
아테네가 보내지 않은 것 넷	
처음 매겨진 벌금 / 감액된 벌금 / 아테네의 결정	
견유학파 디오게네스와의 시간 차 / 그의 기행	
디오게네스가 아닌 두 유형(3·4장)	
스토아로 오게 된 계기 / 전한 사람	
회의주의 아카데미를 이끈 제자 / 입문 경로	
세 사절 / 세 번째 연사	
카르네아데스의 이틀 강연 / 경악한 로마인	
로마인이 디오게네스에게 감탄한 점	
카르네아데스가 로마를 부른 말 / 그가 탓한 사람	
침 뱉은 십 대에게 한 말	

항목	답
대 카토의 증손자 / 그가 된 사람	
키케로의 평가를 전한 학자 / 그 내용	
초기 스토아 정치사상의 핵심 명제	
곡물 논쟁의 상대 / 상대의 주장 / 디오게네스의 원칙	
부와 덕에 관한 디오게네스의 말	
사망에 관한 세 전승	

4-3. 통합 사고 문제 — 4장과 6장을 잇는 자리

문제

4장에서 크리시포스가 '경주자는 힘껏 이기려 애쓰되 결코 경쟁자를 넘어뜨리거나 밀쳐서는 안 된다. 삶에서도 유용한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남의 것을 빼앗으며 구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한 말(39쪽 ¶6)과, 6장에서 그의 제자 디오게네스가 '법이 정한 결함은 밝히되, 나머지는 거짓으로 꾸미지만 않는다면 최대한 유리하게 팔아도 된다'고 한 말(53쪽 ¶6 ~ 54쪽 첫 줄)을 비교하여, 스승과 제자가 자기 이익 추구에 그은 공통의 한계선을 영어 한 단어로 쓰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4장 또는 6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공통의 한계선: You may pursue your own advantage as hard as you can, but never by _____.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